拉被人士 七千五百名의 生死

年內回報에 努力

國際赤十字委서回信

十二일 대한적십자사에서 알려진바에의하면 앞서 실시된 실향사민(北韓拉致者) 등록때에 등록된 약七천五백명의 실향사민들의 생사여부를 금년안으로 확인하고자 「제네바」에 있는 국제적십자 위원회에 대해서 생사확인을 요청 하였던바 국제적십자위원회에서는 대한 적십자사에서 제출한 실향사민명단을 북한적십자사에 송부하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안에 생사확인을 통고할수있도록 노력할것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고한다

대한적십자사 대변인만에 의하면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중간역할은 매우희망적인 것이라고하는데 금년안에 실향사민들의 생사확인명단이 통고될것을 희망하고있다는것이며 적어도 생존자의 숫자만이라도 확인할수있도록 노력하고있다고한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측에서는 국제적십자위원회의적극적인태도로보아 어느정도 낙관하고있어 금년안에어느만큼의 인사의생존여부가알려질지 주목되고있다

團體五個校와 個人17名入選

童謠童話大會豫選

【속보】중앙여자중고등학교주최 본사후원 제三회 전국동요동화대회는 三백八十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하여 대성황을이루었는데 十二일 예선대회에서는 개인十七명 단체五개교가 입선되었다. 본선대회는 十三일하오一시부터 일반에게 공개되는바 예선대회에 입선된 어린이들과 학교는 다음과같다

◎동요독창부
▲신기자(서울청계六년) ▲남덕유(인천신흥六년) ▲박복자(서울남대문六년) ▲윤순영(서울재동四년) ▲장영은(서울미동三년) ▲김혜경(서울덕수三년) ▲다눈자(사범부속五년) ▲저갑진(경기시흥五년) ▲이중영(서울남산六년)

◎동요합창부
▲서울재동국민학교 ▲서울남대문국민학교 ▲서울창경국민학교 ▲서울금화국민학교 ▲서울덕수국민학교

◎동화부
▲채영순(서울남대문六년) ▲김은순(서울남산五년) ▲김영인(서울창경二년) ▲고명연(서울미동三년) ▲성순용(인천신흥四년) ▲이익순(서울방산二년) ▲윤봉희(서울덕수三년) ▲김명수(서울재동三년)

刑事가出頭를慫慂

換票事件報道關係者들에게

이른바 정읍환표사건에 이어 소위 함평환표사진을 날조허위 보도하였다하여 동업 동아 경향 양신문사의 보도책임자(편집국장)과 취재기자를 [illegible] 구속 조사하겠다고 김치안국장이 발언한 十二일하오 치안국중앙분실에서는 모신문사에 형사를보내고 출두하기를 종용하는등 긴장한공기를보였다 또한이날 국회본회의에서 함평환표사건에관한 발언을한 김의택(金義澤)의원(기보한바 김의원에대한정식구속수속을취할려다는 김국장의발언요지는 김의원을 정식 소환하겠다 [illegible] 정합)을 소환한다는 문제에대해서 이날하오五시반 김국장이「진상을 조사하기위하여 소환할수 있는 문제」다고거듭 언명하고있었는데 이에비추어금명간 소환에대한절차가 취해질것으로보이고있다 한편 계속하여 김치안국장은 「신문사의 허위보도 사실에는 무슨일이있어도 해당자를구속조사하겠다」고 부연하였다

金議員걸어告訴

鄭咸平署長言明

十二일상오 소위「함평환표사진의 진상」을발표한 정규선(鄭圭善)함평서장은「八월十三·四일동안 함평경찰서원이 선거관계자들에게 종용을 하였으며 선거에간섭했다는 사실과 八월十六일경 신전남경찰국장등 五、六명이 있는자리에서 서장이 지휘하여 환표했다고 김의택(金義澤)의원이 발언한데대하여 명예훼손및 무고죄로 김의원을 상대로 오늘(十二일) 대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였다」고 말하였다

鄭議員骨切

野球練習中

十三일하오에거행될 의원들 친선야구시합을 위하여 十二일 하오 배재(培材)중고등학교운동장에서 연습중이던 야당연합「팀」과 「팀」루수인 정성태(鄭成太=民)의원은 다리에관절상을입어 곧시내김성진외과에 입원하였다 의사들은 정의원의골절상이 전치二개월을 요한다고말하고있다

三億圜으로 野球場擴張

高市長이言明

고(高) 서울특별시장은十二일기자들과 회견하고서울운동장 야구장확장을위해서 三억환예산으로 공사를 착공할예정이라고말하면서 十월중순경에는제一차로 一억四천만환의예산을 들여 확장공사에착수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고시장만에의하면 동공사가 완료되면 현지의 七계단의 관중석이十四계단이될것이며 약一만여명의관중을수용할수있게된다고한다

二百一點을選定

文化財海外展示品最終決定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한국문화재의 전시품선정을 위하여 내한한 二명의미국박물관장들은 그간十四명의 한국문화재 국외전시위원들과함께 국립박물관을 비롯하여 덕수궁미술관 경주박물관 불국사등 한국문화재의 소장지 답사를 완료하는한편 十二일 하오二시 최종적으로 덕수궁미술관에서 二백一점의 한국문화재 해외전시품을 선정하였다 그런데 二백一점의 문화재는 미국六개도시 박물관의 전시에앞서 오는十一월 중순경부터 우선국내전시를할것이라고하며 미국무성으로부터 파견되어선정을 끝마친 二명의위원들은 오는 十六일 귀국하리라고 하는바 앞으로 문화재의 미국수송을 위하여 조장 수송담당위원이 다시 내한할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해외전시품의 소장별품목은 다음과같다 ▲國立博物館所藏品 회화七점 도자기四十二점불상十三점 토기六점 와전六점 귀금속十八점 계九十二점▲德壽宮美術館所藏品 회화十二점 도자기五十三점 불상十점 토기三점 계七十八점 ▲金亨弼氏所藏品 회화十점 도자기八점 계十八점 ▲孫在馨氏所藏品회화四점 도자기四점 계八점 ▲慶州國立博物館所藏品 토기一점 ▲佛國寺 불상二점 ▲慶州分館 토기一점 와전一점 계二점 以上合計二백一점 (사진은 선정광경)

地方短信

共匪를가장 强盜團出現

【金北支社】 공비를 가장하고 금품을 강탈도주한 二인조강도단이 출현하여 부락민을 놀라게하였다 즉지난三일새벽一시경 진안군마령면 연장리(鎭安郡馬靈面延章里)에서주조업을하는 박영래(朴永來)씨집에 정체불명의괴한二명이 침입하여「우리는산에있는사람인데 돈이있다는 말을듣고왔다」고하며 공비로가장하고위협공갈한후 벽장자물쇠를열고 현금三만五천환과 회중시계一개를 강탈한후전기박씨와 그의고용인 강삼수(姜三洙)씨를 감금시켜 약五十「메터」지점에서「다이나마이트」를폭발시키고 도주하였다한다 한편 이급보에접한 진안경찰서에서는 면(面)서장직접지휘하에 불철주야 맹활동중 지난六일 하오五시경 같은동네에사는백남섭(白南攝=一八無職)을 강도혐의로 체포하는동시 공모자一명은 수배중이라는바 범인백이 진술한바에의하면 공범은현역군인이라고한다

優良貯蓄者表彰

【尙州】 상주군 상주우체국에서는 지난八일·오전十시 동우체국장실에서광복十一주년기념저축강조주간(九月一日~九月三十日) 에저축성적이 우수한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는데 이날수상자는 다음과같다

◎個人賞
▲一等 李相誥(技員)
▲二等 尹玉子(女交換手)
▲三等 林龍泰(書記)
◎班別賞
▲一等 金炳漢外五名一班

鄕土發展懇談會

【錦山】 금산군금산기자단에서는 지난七일 오전十시三十분부터 당지금산읍인삼관(人蔘館)에서 각기관장및 지방유지 다수참석한가운데 향토발전과번영을위한 간담회를개최하였는데 이날회의에는 당지우체국의「케불」가설과 대봉(臨封)고개의「턴넬」착굴에대한 진지한토의가있었는바 동 기자단에서는 앞으로 매달 二、三회에 걸쳐 이와같은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토발전에대한 의견교환을 할것으로서 그성과가 자못 기대되고있다

郡民體育大會盛況

【洪川】 지난 三、四양일간에걸쳐 홍천군민체육대회가 홍천국민학교교정에서 성대히거행되었는데이날종합전적은다음과같다
◎各面對抗競技 ▲一等斗村面▲二等乃城面 ▲三等北方面
◎各面特殊(씨름 [illegible]) ▲一等內面▲二等斗村面▲三等北方面

假憲兵犯行타被檢

【沃川】 가헌병이 석탄을 취체한다고 민가에 들어가 가택수색을하다가 순찰헌병과 경관에 체포된 일이있다 주소를 대전시 선화동(大田市宣化洞二區山의七)에둔 二十八헌병중대군속여공식(余公植=三五)동군속양우근(梁禹根=三五=弘道洞山의八) 시내신안동(新安洞二九二) 김광식(金光植=三一=商) 三명은공모하여지난四일 상오九시경 충남세천(細川)에서 대전철도헌병대원이라고사칭하고 석탄취체를이유로「코크스」三가마를압수하여「스리코다」에실은후 옥천군옥천읍마암리(沃川邑馬岩里)에사는 미창(米倉)사원 홍성범(洪性範=三四)씨집에이르러 같은방법으로 가택수색을하다가 순찰헌병과 경관에게 발각체포되어 방금 엄중한 문초를받고있다고한다

資金流用等에物議

뜻과는달라진軍警援護事業

군경원호를위하여 계상된 범칙물자 판매대금 七억환은 상이군인들과 전쟁미망인들을위해서 사용하기로결정하고 상이군인들을위해서는 농장을 제공하고 전쟁미망인들을위해서는 수산장을설립하기로되어있었는데 최근에이르기까지 시설비조로 三천여만환씩이 각도에 각각 영달되었으나 업체결정도 못지은곳도 있고 수산장 시설목적이외의 일에 사용된 금액도 적지않아말썽이 되고있다고 한다

十二일 보건사회부에서알려진바에 의하면 군경원호회책임하에 진행되고있는 동원호사업은 자금이 영달된지 반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전도 보여지지 않고 있다고하며 서울에 있는 중앙수산장을 제외한 전국의 수산장은 이윤은커녕 적자메꾸기에바쁜지경이라고한다 심지어 강원도 춘천(春川)에 설치된 수산장은 채설비도 갖추기전에 약三백만환에 달하는 거액의 횡령사건이 발생하였다고하며 수산장 종사원의주택이라고 해서 수산장 운영자금으로서 영달된 三천만환중에서 五백만환을 들여 二十五동의주택을 구입하여 말썽을일으키게하고있다고한다

養正對培材「럭비」

서울運動場서擧行

제四회 전양정(養正)「팀」대 전배재(培材)「팀」의「럭비」축구대항전은 배재중고등학교담당대한「럭비」축구협회주관으로 十二일 하오二시부터 서울운동장에서 양교전응원단들이 참가한가운데 거행되었는데 그전적은 다음과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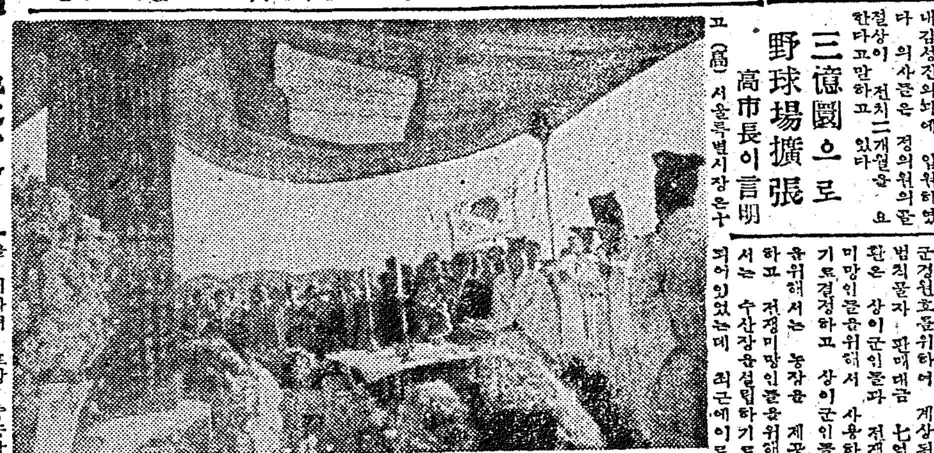
▲高等部(오픈게임)
培材5(5―0 0―3)3養正 主審 鄭華鎔
養正3(3―0 0―3)3培材 主審 張萬玉

第九回씨름大會

첫날戰積

대한 씨름협회주최 대통령친서우승기 쟁탈전겸서서 파견선수 선발전및제九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는 十二일 하오一시부터 서울운동장 정구「코트」에서 개막되었는데 첫날의 전적은 다음과같다

▲高等部團體戰
中央商(大邱)5―0培材
京城電機3―2木浦
交通4―1京畿
東都3―2善隣商
▲中學部團體戰
德壽3―2東都
京東4―1中東



死六臣追慕祭

文總主催로 嚴修

중양절을 맞이하여 十二일 하오二시 서울노량진에있는 사육신(死六臣)묘단에서는 문총(文總)주최로 사육신五백년 추모제가 엄숙히 거행되었다 문총최고위원을 비롯하여 언론계 국회 문교부공보처 등 내빈다수와 사육신의 후예들이 모인가운데 정각하오二시부터 시작된 추모제는 四十五분간에 걸쳐 사육신중 네분묘소와 임시로 설치한두분의 제단앞에 헌작이있었고 사육신비석을중심으로주모제는국립국악원의 주악으로부터 시작되어 분향이 있은후 문총오상순씨의 제문낭독에 이어 상명여고생들의 사육신을 추모하는 노래와 모윤숙여사의 헌시와 김소희 조애실양씨의 시조낭독이 있고 끝으로 헌화분향이 있은후 三시五十분추모제전은엄숙이끝마치었다 (사진은 추모제광경)

15日부터開所

勞務者無料宿泊所

시당국에의하여 마련중에있던 노무자무료숙박소가 오는十五일을기하여 개소된다 동숙박소는 시내상왕십리소재「인보관」을 개수한것으로 백五十명가량 수용할수있는 시설을 갖추고있다

張副統領被擊事件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있는 검찰당국의 장(張)부통령피격사건수사는 十六일째로서 송청이후 六일째에 접어들었으나 아직 최훈(崔勳)이외의 배후관계는 적발하지못한채 계속되고있다

거짓말探知機不日使用

檢察搜査六日째別無進展

이날 상오에는 별진전도 없이 하오三시경부터 최훈의수이동생최옥희(崔玉姬)씨와 김상붕의七촌숙 김재연(金在淵=不拘束送廳)씨에대한 증인조사와 피의자조사만을 끝마치었는데 동증언에서최옥희씨는 자금출처에관하여 자기가 오빠인 최훈에게 돈을 갚은것이라고 진술하는한편 또하나의 새로운증인으로 지목되는 성명미상의 상인과의 관계는 자기가 중개한 거래관계뿐이라고 말하였다는것이다 그리고 김재연씨에 대하여는 김상붕의 최근동태를 심문하였는데 경찰조서 그대로 순순히 시인했을뿐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고 한다 한편이날담당 강서룡(姜瑞龍)검사는 피의자들이 대동소이하게 경찰조서를시인할뿐 그이상의 배후관계에는 일체함구불언하고있음에 비추어 두피의자의 심경변화를 기다리는 한편불일간 거짓말탐지기를 등장시켜 미군수사관의 지도를받아 피의자를 심문하겠다고 말하였다

邊女史獨唱會

市立劇場서大盛況

한국연주가협회주최 본사후원으로「쓰프라노」 변석진(邊錫鎭)여사의 독창회는 十二일저녁七시 시립극장에서 막을열어 대성황을이루었다 이번독창회를가진 변여사는 일찌기 본사주최「신인음악회」로「데뷰」한 실력있는 여류성악가로서 이번독창회는「이태리」어를토대로한 본격적인「벨·칸토」창법의 연구발표일뿐만 아니라 음악의 생활화에대한 진지한 시도이었던것이다 (사진은 음악회광경)

「두꺼비」의 特殊强盜

十二日、中部署서逮捕

十二일 서울 중부경찰서에서는 영화「필림」강도단과 권총강도단등 二건의 특수강도 피의자들을 검거하여 구속문초하고있는데 경찰조사에 의하면

○…주소를 대구시대명동(大邱市大明洞)에둔이영희(李永熙=二五)와 이상배(李相培=一九)는十二일 새벽一시三十분경서울시 중구 을지로(乙支路)六가一八번지에서 최용택(崔龍澤)씨가 경영하는 조연사(朝硏社)라는 발성영화기 공작소에 침입하여 숙직원 나일찬(羅一燦=一九)군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서「떠들면 죽인다」고 위협후 十六「미리」영사「필림」([illegible])三권(時價二百萬圜)을 강탈도주하다가 현장부근에서 순찰경관에게체포되었다고하며

○…주소가 일정하지않은 김문경(金文卿=二七)과 정용해(鄭湘海=二七) 그리고하복룡(河福龍=二六)등三명은 九월초순경기도양주군와곡면마석리(楊州郡瓦谷面磨石里)고개에서 성명불상의남자(約四〇歲=畜牛商)를 불러내고「손들고돈을내라」고 권총으로 위협해서 소관돈 二十만환을 강탈도주한것을 비롯하여 전후四차에걸쳐 양주군일대에서 강도짓을하다가 그후 서울 모처에은신중 十二일 아침九시경 경찰에체포되었다는데 이날 그들의권총과 실탄도 압수하였다고한다

56日만에逮捕

大邱韓巡警殺害强盜

【慶北支社】 지난八월十三일밤 대구경찰서 달성동파출소(達城洞派出所) 근무순경한은교(韓殷敎)씨를 살해한 강도범이 범행후五十六일만인 지난八일드디어 남대구 경찰서 양희운(梁熙雲) 장지욱(張志旭)양형사에게 체포되었다고한다 범인은 대구시남산동(南山洞)二구一一〇김창술(金昌述=二四=無職)이라고하는데 전기김은 지난八월十三일새벽 四시경 대구시도원동(桃園洞)三 금호당(琴湖堂)시계점 최종범(崔鍾範)씨집에 침입하여 최씨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려다가 최씨가 한순경에게 신고하여 한순경과 최씨양인이 추격중 돌연 전기김은 최씨를 식도로 찔러 중상을입히고 한순경의 복부를찔러 즉사시키고 도주하여 대구시내에서 근무달동안에 절도十여회 강도一회를범하여 현금물품등 약三十만환을 탈취하고 지난七일새벽三시경 대구시서문로(西門路)一가六二 김화성(金華成)씨 집에 식도를가지고 침입하여 김씨를 위협하고 의류十여점을 강탈도주한후 범행후 양복등을 시장에서 팔다가 十五시간만에 체포되었다고 하는데 한순경을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는 한편 살해한 식도도 증거물로압수되었다고한다 한편 범인을 체포한 형사들은 一계급 승진과 현상금十만환을 받게되었다고한다

傀儡間諜李를檢擧

【春川】 전국방첩주간을 맞이하여 사찰력을 간첩색출에 총동원하고있는 강원도 경찰국에서는 거물급괴뢰간첩을 검거하였다 한다

즉 동경찰국형사대는 지난九월二十八일 하오九시경충주시(忠州市) 모처에 은신중인 괴뢰간첩 이경수(李璟洙=三七―男)를 체포하였다는데 전기이는 본적은 청원군(淸原郡)에 두고 주소가일정치않은 자로서 본적지의 보통학교를졸업한후 운전수로종사하다가 해방후에는 평안북도만포진(滿浦鎭)에서 자동차수리공장을경영하던중 열성공산당원이되어 八三년도에 괴뢰상업성지도원으로 임명되었고 八四년에는 상업성 관리국운수부원으로 승진이후 운수과장등을 지냈다고하며 八七년도에는 상업성 조직국부국장의 자리에까지 오른 부국장재직중 八八년十二월 노동당중앙당부의 소환을받고평양(平壤)에서 七개월간 대남간첩으로서의 밀봉교양을 받은다음 지난八월二十七일 야음을 이용하여 어선을가장한 발동선에 편승 다음날 二十八일하오九시경 경상북도포항(浦項) 근처에 상륙한다음충주시내매부집에 은신중임을탐지한 평창(平昌)경찰서에서 이를 검거한것이다 한다 그런데 전기 간첩이는 양민을 가장하기위하여 도민증교부신청까지 하고있었다고하며 사업토대를 세워가지고 확고한 침투를 꾀하려고 [illegible] 三천「딸라」의 거액을소지하고있었다한다

女人은어디로?

銃쏘며 禁取締턴警官도失踪

경비계순경이술에만취하여 통금위반자들 취체중 여러발난사후 여인한사람에게 위협발사후 그여인과함께 행방을 감춘 괴사건이서울의밤거리에서 발생하였다 十二일 새벽영시三十분경 서울시중구동자동(東子洞)三三의一에사는 이운학(李雲學=二五)씨집앞에서는 통행인에게「나는 중부경찰서경비계순경인데 신분증을 제시하라」고하며 권총을바른손에들고서 취체를하던정복순경이있었다는데 그순경은 후암동(厚岩洞)三五二에사는 이정식(李正植=二六=美八軍架士)씨의 신분증을 빼앗은다음 신원일체미상의 二十四세가량된여인이 [illegible] 발견하자 권총을발사하고 정지시키므로 그틈을타서이씨는 후암서부경찰관파출소에 즉시신고하여 경관과같이 현장에 가보았으나 취체하던 경찰관과 그여인이 다같이 행방이없어졌다는 것이다 보고에접한 소할중부경찰서에서는 즉시 그순경과 여인의 행방을 수배하고있다는데 이날 낮十二시까지도 아직 그사람이 순경이었는지의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査問委」延期

副統領警備責任者

【속보】김치안국장은 十二일 사정에의하여 이날 속개할예정이던 장부통령피격사건에대한 경비책임자에관한 사문위원회는 二·三일동안 연기하게되었다고 말하였다

三軍士官學校 體育大會開催

19日부터三日間

국방부주최 제三회육해공군사관학교체육대회가 오는十九일부터 연三일간에 걸쳐 서울운동장에서개최되리라한다 그런데 경기종목은 축구 럭비 二종목이며 특히 응원상도 있게되었다한다

六名을送廳

伐木許可收賄事件

벌목허가를둘러싸고 二백六十만환의수회가있다는 농림부직원들의부정사건을수사중이던 서울시경찰국에서는 十二일동사건수사에일단락을짓고 구속二명 불구속一명 미체포 三명도합六명의 피의자를 서울지방검찰청에송청하였다 그런데 이날 경찰에서는 六十만환을수회하였다는 농림부총무과주사 두병기(杜炳琦)씨와 농작물검사소 촉탁 박창동(朴昌東)씨만을구속 송청하고 체포치못한 二명의 농림부직원과 분교총무원 재무국장에대한소재는 계속수사하게된것이라한다

모임

▲景福高學校創立三十五周年祝賀校內體育大會=十三日上午九時부터 同校運動場에서
▲서울大學校開校十周年記念貴重古圖書展示會=十三日부터十七日까지 同校中央圖書館에서
▲한글학회및 전국대학국어국문학교수단共同主催 한글頒布五百十周年記念講演會(王朝實錄에나타난世宗大王의聖業=李秉岐 詞腦의編纂에對하여=李鐸)=十四日下午二時外國語大學講堂에서

女人의生態

鄭漢淑 作
金湖星 畫
(164)

颱風七號 (8)

「자…저길 어떻게 가지…」

어항을 갈만것 같으면 낭떠러지가 되어있는 종암으로 된 해안선을 넘어서야만 했다。

열에서 창수가 말하듯이 밀려 드는 파도는 온통절벽으로만 밀어치는 것같았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처 부서질때마다 솟아지는 물거품이 마치 연기가피저 오르는것 같기도 했다。

창수가 먼저 그런말을 하지않았던들 난희는도저히 그곳을 듣고나간것 갈길 알았다。 그러나 창수가 먼저망서리고 보면 난희는 설사가다 물아서는 하이 있다 해도 갈수있다고 우겨 대고만 싶었다。

「무엇 때문에 가지못하니지…」

「아、저 파도를 좀봐요。그대 저렇게 파도가 심하게 절벽을 이치는데 저길 넘어설수있어…」

「그럼 저파도속엔 어족(魚族)들이란 통없겠지…」

「이런 때엔 파도를피하여 해심(海心) 깊은곳에 트러박혀 있는지도 모르지…」

「너무 겁을 집어먹지 말아요 글쎄…그것도 또나 때문이라고 그러시겠지…」

「누가 아니래…난희만 없다면 누가 저런파도좀 걱정을 해…」

「공연히 남의 걱정」

난희가 먼저 걸음을옮기니 창수도 따라가지않을수없었다。

절벽에 부딪처 부서지는 물방울이 얼굴에 까지 한다「뒤덮인다。

아무래도 창수는 발길이 잘 내디디어지질 않는것 같았다。

어떻게 해서라도 난희와 함께 돌아서고만 싶었다。

「부질없는 고집을부리지 말고 그럼 우리 저리로 가도록 해요…고개ㅅ길을 넘어가도 마찬가지지…」

「글쎄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고만이라든 하지만…그래도 스릴이 없겠지…저 속을 지나간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리지 않아…」

「글쎄 저 밑에 암초(暗礁)만 없어도 위험하지 않지만 죽을이 깔려있다니까…」

창수가 이렇게 소리처도 난희는 들으려 하질 않는다。

몇걸음 떨어져서 볼때는 파도와 바위가 서로 물어뜯는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가까이 와서 보면 그렇지도 않았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솟아 나갈 구멍이 있다 듯이 멀어져서 바라볼때는 도저히 절벽을 돌아나갈것 같아 보이지 않았지만 정작와보고 보면 그런것도 아니었다。

물론 물바위에 부딪친 물결이 부으거지며 어깨며 앞 가슴을 두들겨때릇 열브티지만 그렇게 생각하는것 보다는 덜 심한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창수와 난희사이는 불과 무세걸음 떨어진 사이였지만 그사이를가로막는 물결로 가끔창수는 난희의 그림자를 잃어버리기가 일수였다。

그럴때마다 창수는 발걸음을 머무르고 서있으면 다시 가라앉는 물굽이속에 난희의 밋밋한 다리와 날씬허리가 마치 물속에서 마음껏 헤엄처 다니는 큰 잉어모양 하물거리고 서있는 것 같았다。

다시 솟은파도가 창수를 물 바위로 착각을일으켰던 모양인지 사정없이 후려친다。

창수는 하마터면 그대로 파도에 휘감겨버렸을 것이지만 그대로서있는것이 기적인 것같았다。

소금물이 눈자우에들어간모양인지 온통 눈이쓰려 앞을 볼 수가 없었다。

바다를 征服하는男兒一代의勇魂과純愛! 迫力과興奮!에넘치는
워너―社의大作
艦長 호레―쇼
總天然色
巨匠 라울 월슈 監督
그레고리·펙★바지니아·메이요 主演
上映時間表 1回 10.20 2回 12.15 3回 2.15 4回 4.15 5回 6.15 6回 8.10
12日開封 首劇
韓國興業株式會社 配給

아프리카 縱斷
總天然色猛獸實寫映畫
再開封
監督 아만드·데니스 RKO 라디오社提供
13日부터 明洞

美容 學生募集
서울美容技術學校
◎速成科 研究科
◎開學 十月十九日
美容師資格 就職責任敎授
中區山林洞八九 (국도극장앞골목)

各種 不眠症에
瑞西로슈製의 習慣性없는
아로나루錠을!

頑強固疾化한
淋疾·梅毒에
Bristol LABORATORIES INC. SYRACUSE NEW YORK
◎淋疾 梅毒의 治療藥物이 顯著한發達을期한 오늘날 從來에 使用하여오던 注射나 其他藥物로써 治療를期하지 못한분에게 그原因療法으로 藥物의 低抗이나 或은注射後藥物이 腎臟으로부터 排泄하는 弊端을防止한 有効藥物이며 體內에 長期間持續하여 完全殺菌하게됩니다
◎판바이오틱은 高單位製劑임으로 少量의注射로 써 初期疾患은 勿論慢性疾患까지도 容易하게 治療할수있읍니다 全國有名藥局販賣中
品切中 再入荷!
高單位抗生劑 600萬單位
판바이오틱